第121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 2002年5月10日(金) 午前 11時00分 開式

第121回鐘路區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대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대한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 議事業務擔當主事 李潤植)

(11時00分 開式)

○議事擔當主事 李潤植 지금부터 제12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겠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齊唱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이 있겠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以煥 평소 존경하옵는 종로구민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李老根 區廳長 權限代行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이 푸르른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을 뵈오니 감개무량합니다. 4년 전 신록이 짙은 계절에 제3대 종로구의회가 힘차게 출범한 바 있는데 그때가 엊그제만 같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종로구를 21세기를 주도하는 선진 자치구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전 의원이 일치 단결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 수요가 다변화하고 있는 고도 산업사회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행정과 제도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숙원사항과 불합리하고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아쉬운 점과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하여 주신 종로가족 모든 분들에게 거듭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지방자치제는 지역특성과 여건이 서로 다르며 주민 정서도 다양한 각 지역에 대해 지방 스스로 지방의 다양한 욕구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을 자체 확보하고 정책도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고 책임과 의무도 함께 따르는 지방분권제도입니다. 하지만 종로구는 구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자치제 정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청와대 등 주요 행정기관이 100여 개소가 넘고 종묘, 경복궁 등 중요문화재, 그리고 외국대사관과 종교시설, 교육기관들이 집

결되어 있어 비과세 시설물이 타구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인왕산, 북한산, 북악산으로 둘러 쌓여있어 토지 이용률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더불어서 유동인구 수가 하루 200만 명을 넘고 있는 종로구로서는 사회 간접 투자비용도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이 들고 있어 재정형편이 더욱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 서울의 행정과 사회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로구의 중요한 위상과 비중에 맞게 종로지역 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관련부처에 건의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일선에서 봉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종로는 특히 재원을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구청에서 집행한 2001 회계년도 예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나온 결과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서 올바른 결산검사를 받고 정책에 반영하는 귀중한 계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내·외빈 여러분! 우리 의회는 행정집행을 수시 감시하는 활동과 아울러 집행부와 협조하여 투자가들이 종로구에서 안심하고 편하게 사업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그밖에 주차공간, 문화공간, 체육시설, 쉼터 등도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왔으며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 많아 투자를 기피하는 우리 종로지역을 재개발하여서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서도록 함으로써 상권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를 극복하기 어렵고 자치제도의 자율성마저도 제약받고 있는 자치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자치단체간에 극심한 편중발전이 문제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협동심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님비 현상까지 발생하는 현 자치제도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중앙정부나 서울시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명예롭게 헌신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짧은 몇 마디 위로의 말이 그 동안의 노고와 수고에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3대 의회의 명예로운 활동 상은 종로구의회사에 영원히 기록되어 남을 것이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주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擔當主事 李潤植 이상으로 제12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 15分 閉式)

○出席議員數 18人

○出席關係公務員

區廳長權限代行	李老根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財務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保健所長	鄭有珍